



죽음의 수용소에서  
빅토르 E. 프랭클 /  
이시형 옮김 / 청아출판사

좌절과 실망으로 몸부림칠 때, 그보다 더한 시련과 고통을 견딘 사람의 이야기는 감동과 힘을 준다. 이런 면에서 빅터 프랭클의 강제수용소 경험은 깊고 큰 내용을 담고 있다. 유대인이 겪은 고통과 일제를 겪은 우리의 역사적인 유사점과 함께 개인의 일상적인 삶의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직면해야 할까?

### ‘파블로프의 개’, 삶의 이론

대부분의 심리학 이론은 가설에 따라 실험과 논증이라는 과학적 방법의 모양을 갖추어 우리에게 소개된다. 흔히 알고 있는 ‘파블로프의 개’만 해도 ‘조건-반응’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개들이 이 연구에 희생되며 고통스러운 스트레스에 시달렸는지 모른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희생당하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보게 된다. 빅터 프랭클은 정신과 의사로 자신의 연구 기록에만 집중하는 일상을 살다가 느닷없이 수용소에 끌려간다. 연구 논문만 간직할 수 있다면 수용소 생활도 견뎌낼 수 있을 것만 같은 그의 기대와 염원이 부질없음을 경험하면서부터 그는 현실을 살아냈다. 이 책은 학자의 관점으로 만들어낸 가설과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이 반복되는 내용이 아니다. 현실을 살아내며 느낀 과정이 오롯이 담긴 책이다. 그래서 이 책의 감동은 이론보다 강하다. 삶과 죽음이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존재일 수 있는지의 선택이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가치와 다르지 않다는 예리한 관찰과 통찰이 가득하다. 기능과 역할의 유용성으로 가차 없이 가스실로 보내는 독일군과 카포에게 몸서리치다보면,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의 우상 앞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우리들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돌아볼 수밖에 없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관찮은 모습으로 사회적 성공을 이룬 당대의 우리 이웃을 꽤나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이며 교인으로 세우는 이 현실은 성경적인가를 질문하게 된다. 옴은 모든 것을 잃는 고난을 겪으면서 입술로도 범죄 하지 않았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는지를 빅터 프랭클은 수용소의 생활을 경험하며 발견했다. 그리고 우리가 긴장해야 함을 당부한다. 수용소의 해방이 자유와 기쁨을 만끽하도록 직결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도덕과 심리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노출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모든 고난이 지난 후 옴의 회복과 일상을 존경해야 하는 이유는 단지 갑절의 소유가 아니다. 빅터 프랭클은 단지 수용소의 고통을 이겨낸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상황과 조건에 국한되는 역사가 아니라는 점과 피조물로서의 인간이 가장 존엄하다는 말을 과학적으로 하고 있다. 이로써 로고테라피는 일종의 심리학에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심리학은 신학과 철학의 응용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함께 읽는다면 도움이 될 만한 책으로 빅터 프랭클의 『무의식의 하나님』, 맥스 루케이도 『너는 특별하다』를 추천하고 싶다.

### 책 속의 한 줄

인간은 행복을 찾는 존재가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내재해 있는 잠재적인 의미를 실현시킴으로써 행복할 이유를 찾는 존재다. \_p.221